

박람회 환승주차장 부지선정 갈등

서갑원의원 “여수 3곳, 순천·광양 각 1곳 확정”… 조직위선 “검토단계”

2012여수세계박람회 교통대책의 일환인 환승주차장을 여수에만 둘지 순천·광양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여수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조직위는 최근 순천이 지역구인 서갑원(민주당)의원이 여수박람회 환승주차장으로 여수 3곳과 순천과 광양 각 1곳 등 총 5곳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힌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직위 측은 “서 의원이 발표한 곳

은 검토단계로 아직 미정”이라며 “환승주차장 부지 선정을 위해 용역을 수행중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중간 용역결과 돌산지구, 죽립지구, 박람회장, 여수 국가산단 등 여수지역 4곳 외에 순천 1곳(신대지구)이 예비로 잠정 선정됐으나 최종 확정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 의원 측은 “국회 여수박람회 지원특위 위원으로 근거에 의한 발표”라며 “당초 조직위가 여수에만 환승주차장을 두려다 순천과 광양이

포함돼 여수시민의 반발이 우려되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수시의회 박람회지원특위도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위가 환승주차장 건설비 재정부담을 피하려고 당초 여수지역 4곳에 두기로 한 협약을 맺고, 순천과 광양을 끌어들여 분산 설치를 추진하는 등 조직위가 협약을 맺고 있다”며 명확한 태도를 표명을 요구했다.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도 환승주차장의 순천·광양 분산 배치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조직위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

박람회조직위 이상주 건설총괄과 장은 “당초 여수에만 환승주차장을 두려다 여러 변수를 고려, 광양과 순천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수시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정부지원위의 결 등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너울대는 갈대~ 넘실대는 가을

10일 순천만을 찾은 탐방객들이 갯벌과 어우러진 갈대밭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순천만에

〈순천시 제공〉

여수로 쓸리는 세계의 시선

박람회 참가준비국 실사단 방한 줄이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준비를 위해 각국 실사단의 방한이 이어지고 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박람회 참가준비를 위한 터키정부 실사단이 진 4~9일까지 6일간 방문한 데 이어 11일부터 중국·일본 등 각국의 실사단이 연이어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차관급인 야부스 세리프 아라즈(Yavuz Selim Araz) 총리실 수석자 문관을 단장으로 한 터키정부 실사단은 지난 7일 여수를 방문해 박람회장을 돌아본 후, 박종록 사무처장 등 조직위 관계자와 전시관 배점, 전시연

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터키는 2005 아이치 세계박람회, 2008 사라고사 세계박람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어 여수 세계박람회에서도 수준 높은 전시연출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10월 말 상해박람회 폐막에 즈음해 각국 실사단 방한이 본격화된다”며 “상해박람회 이후 세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여수세계박람회로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은 7일 현재 68개국으로 연말까지 유치목표 70개국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국제 원예생산자협 순천 총회 폐막

제62차 국제 원예생산자협회(AIPH) 순천 총회가 6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8일 폐막됐다.

이와 함께 AIPH는 지난 5일 순천 총회 마케팅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2016년 정원원박람회 개최지로 중국 당산시를 결정했다.

총회에 참석한 17개국 회원국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중국 당산시의 정원박람회 개최를 승인했다.

베이징과 텐진 두 도시를 연결하는 중주역 역할을 하는 공업도시인 당산은 2016년 정원원박람회 개최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곡성, 아름다운 숲길 만든다

郡, 섬진강 주변 4곳 테마길 조성키로

섬진강을 긴 청정 지역 곡성군이 아름다운 숲길 조성 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달 말부터 곡성을 구원리 복호폭포에 숲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심청연 기설화의 근원인 오산면 관음사 일원의 ‘원홍장 숲길’, 섬진강 기차길 주변 2곳도 테마가 있는 숲길로 구밀 계획이다.

복호폭포 숲길에는 폭포 반대편 능선에 포토존을 만들어 동악산 찾는 등산객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청효(孝)를 테마로 하는 ‘관음사 숲길’은 관음사 주차장에서 사찰까지 1.7km를 숲길로 꾸미고, 오는 2012년까지 5km의 자연친화적인 숲길과 심청효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섬진강 기차숲길’은 국도 17



곡성군 곡성을 구원리에 위치한 복호폭포 전경.

호선의 철쭉 길과 증기 기관차·레일바이크의 기차길을 따라 섬진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

국적으로도 도보 코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맑은 물과 공기를 자랑하는 곡성이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민선 5기 출범 100일을 맞아 허남석 곡성군수의 ‘3통(通)론’ 지역사회와의 화제가 되고 있다.

허 군수는 취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의사소통·만사형통·운수 대통의 ‘3통론’을 강조했다.

허 군수의 주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이 잘 되면 이를 실행하려는 열정과 화합으로

넓은 커다란 표석을 세우고, 그동안 상황실·회의실로 침하던 곳을 통마당·한마당으로 바꾸어 부르며, 군청 간부들의 견해 제외에서 도 ‘통하여’ “3통으로” 등 ‘통(通)’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허 군수는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동안의 소회와 더

곡성군수의 ‘3통론’



불어 “군민들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3통’으로 행복한 곡성을 가꾸어 나갈 것”이라 말하고 “삼진강 기차마을의 상업적 관광 기반 확충과 돈버는 농업을 통해 군민들의 호주머니를 부풀려가겠다”고 다

짐했다. 이미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든 지방자치단체, 신뢰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허 군수가 치켜 든 ‘3통론’이 곡성 발전을 이끌어 내는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될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kjkim@kwangju.co.kr

“지역 발전 견인”

고흥 경제인협 발족



고흥지역 경제인들의 권리 대변과 관계기관과의 교양역할 등을 담당할 가칭 ‘고흥지역 경제인협의회’가 발족됐다.

지역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40여명이 참여한 협의회는 최근 임시 회의를 갖고 창립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협의회 결성 목적과 운영방법 등이 담긴 정관 등을 마련했으며 녹동 조선소 박장길 대표이사 등 9명을 주진위원으로 위촉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회원기업 제품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사회 봉사 등 지역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펼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주죽중기자 gjju@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꿈꿔보기 원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군민사회

대표이사

정우현

전화번호

010-750-7520

FAX

010-3626-0920

주제 / 새개발

영향승합장

010-3626-0920

경매승합장

010-3626-0920